

2021년 1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식회사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매주 화요일 11:30~12:30 ※ 수시로 메일, 전화	1명(매주 1명씩)	-	3명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미디어 공감! 좋은TV	금요일 08:50 ~ 09:50	

※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변경된 경우 기재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채정화	11/05	「오늘의 월드뉴스」 예전에 비해 주제나 대상국들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이슈, 부정적 뉴스에 편중돼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미선	11/12	「오늘은 경인세상」 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 사업을 소개했는데 마치 사업보고서를 보듯 것처럼 딱딱했다.	
채정화	11/19	「경이로운 세상」 여행 코너를 온라인 미디어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했는데 젊어진 느낌은 좋았다. 하지만 해당 시간대 주시청층이 중장년 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유우현	11/26	「공간다큐 만남」 11월 16일 방송분의 경우, 아이템 별로 유기적 서사가 부족했다. 자전거 동호회의 라이딩을 배경적 요소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체로 삼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	---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 모든 평가원 작성 요청

※ 평가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기 반영 요청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유우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2021. 04. 01	
활동	이미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2021. 04. 01	
활동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021. 04. 01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 시청자평가원이 출연하여 진술한 내용 및 방송사측의 의견을 요약해서 작성 요청

방송일자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방송사 답변내용
436회 2021/11/5	채정화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의 월드뉴스> - 10/26~28 방송분 -</p> <p>이전과는 달리 에너지 문제, 사이버 공격, 수교 문제 등 다루고 있는 뉴스 주제나 대상국들이 다양해졌다. 또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라던가 외교 갈등, 갱단 두목의 총리 사임 요청 등 정치적 이슈, 부정적인 뉴스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p>	<p>되도록 다양한 이슈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슈와 사회, 경제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슈의 정보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뉴스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외신사 뉴스 소스부터 미담이나 문화 등 다소 가벼운 주제는 그 공급량 자체가 적다. 그러나 지적인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주제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p>
437회 2021/11/12	이미선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은 경인세상> - 11/01 방송분 -</p> <p>이날 방송에서는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소개됐는데 마치 사업보고서를 보는 듯한 딱딱하고 정보로만 나열돼 지루한 면이 있었다. 특히 반복되는 배경 화면이 이런 지루한 수업의 느낌을 더했는데 해당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더라면 흥미도 생기고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p> <p>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할 지라도 그 전달 방법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지는 만큼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p>	<p>참여와 실천으로 이루는 안전도시 인천 VCR은 총 8편으로 제작되었으며 11/1 방송은 시민이 직접 사회재난훈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천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큰 움직임이나 이슈가 적어 자료화면이 부족했다.</p> <p>직접 리포터가 참여해서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점 충분히 인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루함을 덜도록 편집, 구성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p>
438회 2021/11/19	채정화	<p style="text-align: center;"><경이로운 세상> -11/12 방송분 -</p> <p>요즘 유명 유튜버 등 온라인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TV방송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만큼 이들의 스타성과 인기를 활용해 시청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인데, <경이로운 세상> 역시</p>	<p>제작환경에 맞춰 가능한선에서 출연자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청감각 측면에서 유효성은 제작진도 고민 중인 사항이다.</p> <p>소구력 있는 내용 구축에 보다 고민하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다.</p>

		<p>온라인 미디어 활동가들과 여행코너를 함께 진행했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짧어진 느낌은 좋았다. 하지만 이 시간대의 주시청층이 중장년 주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여행 메이트로 나선 출연진과 시청자의 공감해 형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p> <p>프로그램의 성격상 새로운 잠재 시청자층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 타겟층에 대한 고민, 이들에게 어떻게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소구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해보인다.</p>	
<p>439회 2021/11/26</p>	<p>유우현</p>	<p><공간다큐 만남> - 11/16 방송분 -</p> <p>이날 방송을 보면 내레이션과 제작진 인터뷰가 중간 중간 들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스토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아이템별로 유기적 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라이딩 장면을 교차편집한 부분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았나 싶다. 오히려 자전거 동호회의 라이딩 장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단순하게 배경적 요소로 자전거 동호회의 라이딩 모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가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p>	<p>‘공간다큐 만남-안산 대부도, 가을의 맛과 추억을 건져 올린다’ 편에 대한 평가원님의 의견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대부도 편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고 여타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어진 공간인 대부도를 어떤 차별적인 주제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있었다. 가을의 시의성을 반영한 ‘추억’이라는 컨셉으로 대부도와의 만남을 구성했으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제작진으로서도 아쉬움이 많은 회차가 된 것 같다. 이번 평가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미디어 공감! 좋은 TV

■ 제436회 ■

- 방송일시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AM 8:50 ~
- 녹화일시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AM 10:05 ~
- 녹화장소 OBS CS1 스튜디오
- M C 최진봉 교수
- 패 널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
[터치 OBS I] 최지혜 아나운서 & 채정화 박사
[터치 OBS II] 최지혜 아나운서 & 이지은 박사
[클릭 OBS]

{미디어 공감! 좋은TV}

VCR-TITLE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MC] 안녕하세요~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진봉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인용한 보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차범위 내인데도... 누가 '1위'를 했다, 누가 '이겼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 해선 안 되는데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여러 언론사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신중을 기해서 전해야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정확하게 보도인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TV>... 첫 순서는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김대희 기자, 미디어 관련 소식...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까요?

CG백판! (자막 한줄씩 발생)

김대희] 이번 주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또 등장한 '김정은 신병 이상설'> ,
두 번째 키워드는 <중간광고 규제 관리감독 강화>,
마지막 키워드는 <선정적 폭력적 자료사진·이미지>입니다.

최MC]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또 등장한 '김정은 신병 이상설'

김대희]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또 등장한 '김정은 신병 이상설'> 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쿠데타로 축출됐다는 사망설이 나오고, 국가정보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반복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결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VCR 인서트!

무분별한 외신 받아쓰기, 언론은 김정은을 몇 번 죽일 것인가

미국의 한 잡지가 내놓은 김정은 사망설 보도를 가장 먼저 인용한 언론은 '김정은이 김여정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하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가짜 뉴스로 판명났고 국정원이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에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만 전하고 이번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국정원의 주장은 보도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미국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전한 신문도 있었는데요. '김여정 쿠데타설'을 사실이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보도들입니다. 김정은 사망설, 고위 인사 처형설 등 북한 관련 헛소문은 언론의 단골 오보 레퍼토리인데요. 지난 9월에도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행사 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인이 아니라 대역일 수 있다는 의혹을 외신이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34개 매체에서 "전했다", "주장했다", "거론했다"며 외신을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받아썼습니다.

최MC] 북한 관련 취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최대한 교차 검증을 하고, 오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언론의 자세인데... 이번에도 오보가 많았군요?

김대희] (네, 그만큼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북한 관련 취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북한 내부정보 취재가 어렵다고 해도 언론은 대북 보도의 경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며, 알려지지 않는 보도를 인용할 땐 도움 될 정보를 함께 실어 시청자·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대답)

최MC] 북한 관련 미확인 보도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짧게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중간광고 규제 관리감독 강화

김대희]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중간광고 규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엄격한 사후규제 적용

방통위는 매체 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되었으며,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시간·횟수 등 통합기준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MC]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될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우려가 시청권 침해였는데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거군요?

김대희] (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답)

최MC] (짧게 마무리하시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선정적 폭력적 자료사진 · 이미지

김대희]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선정적 폭력적 자료사진·이미지>입니다. 사건 관련 보도를 보다보면 자극적인 삽화나 이미지를 곁들여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불필요하게 자료를 쓴 기사들이 주의를 받았습시다. ‘미디어 오늘’ 기사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기사에 폭력 장면 자료사진 꼭 필요할까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자료사진·이미지를 쓴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한 신문은 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전하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남학생 한명을 괴롭히는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는 산책로에서 20대 커플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체포됐다고 전하며 한 남성이 누군가를 흥기로 해치는 이미지를 썼는데요. 기사심의분과위는 학교폭력의 장면을 굳이 실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이라고 지적했고요. “심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내용의 이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현장 사진이 없는 기사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화면이나 일러스트를 넣는데, 묘사가 선정성이 지나치거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MC] (짧게 마무리하시고)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 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VCR-TITLE	<터치 OBS>	SOV
------------------	-----------------------	------------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채정화 박사

최MC]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 보는 <터치 OBS> 순서입니다. OBS 시청자평가원이신 채정화 박사, 그리고 오늘부터는 최지해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먼저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S/S 최지해 아나운서 (미디어 공감! 좋은TV)

S/S 터치 OBS {오늘의 월드뉴스}

10월 26일~28일 방송 평가

최지해]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평일 저녁에 방송되고 있는 <오늘의 월드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현안이나 흥미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제뉴스 프로그램인데요. 화면으로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VCR < '오늘의 월드뉴스' 10월 26일~28일 하이라이트 >

더빙

최지해] <오늘의 월드뉴스>...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의 방송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미국, 또...복제 백신 개발에 나선 아프리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비롯해 에너지값 급등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소식 등을 만나봤습니다.

최MC] 네. 그럼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사흘간의 방송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뉴스의 아이템 선정...어떻게 보셨는지요?

채정화] 사흘간의 월드뉴스에서 첫 아이템은 늘 코로나 19 백신 관련 보도가 차지했지만 백신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소식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소식에 이르기까지 보도의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기 때문에 단발성 보도, 파편화되고 피상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완결된 형태의 뉴스, 심층 보도, 연속 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2분 30초 내외의 보도이지만, 주요 의제의 경우 갈등 요소와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뉴스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향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MC] (짧게 정리해주시고)
그렇다면 지난 번 평가와 비교해 나아진 점, 혹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정화] 지난 번 평가 때에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들로 70% 정도가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정 아이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흘간의 <오늘의 월드뉴스>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 사이버 공격, 수교 문제 등 다루고 있는 뉴스 주제나 대상국들이 다양해졌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제보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뉴스에 편중되어 있고,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월드뉴스>에서는 오히려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보다 개선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라던가, 외교갈등, 갭단 두목이 총리 사임 요청하는 등의 정치적 이슈, 부정적인 뉴스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MC] 뉴스의 아이템들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었던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정치적 이슈나 부정적인 뉴스에 아직도 좀 편중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이번에는 하나의 코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해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죠?

최지해] 네. <오늘의 월드뉴스>에서는 1년 전 뉴스와 비교해 그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하는 '1년 전 그 後'라는 코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10월 28일 방송된 '1년 전 그 後'에서는 낙태금지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폴란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로 새롭게 변신한 루마니아의 관광 명소, 드라쿨라 성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VCR 인서트!

10/28 <1년 전 그 後>

최MC] 네. ‘1년 전 그 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채정화] 코너의 기획 측면에서는 <오늘의 월드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1년 전과 후로 비교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코너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코너는 아니지만 분명 시청자들의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시청자들의 기억을 환기도 시켜주고요. 또한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기형아 낙태 금지’에 관한 상반된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양상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 균형있게 보도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템으로 루마니아 명소 드라쿨라 성이 할로윈을 맞아 변신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두 아이템의 괴리가 너무 커 같은 코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선정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폴란드의 사례가 국제 사회에 주는 함의, 유사 국가들 사례와 비교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심층 보도 형태로 다루는 것이 코너의 기획 의도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MC] (짧게 정리해주시고)

네. <오늘의 월드뉴스>...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릴 텐데요. 최지해 아나운서...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최지해] 네. 첫 번째 의견입니다. 10월 26일 뉴스에서는 백신가뭉에 시달리는 아프리카가 복제 백신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행히 복제 대상이 된 백신 제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 자막으로 ‘지재권 주장 안 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줄임말 대신 원래 표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뉴스에서는 약속과 달리 아프리카에 백신 배급이 잘 되지 않다고 했지만 뒷부분 전한 해당 백신제조사의 인터뷰에서는 “저소득 국가에 가능한 많은 백신을 공급하겠다” 오히려 앞선 내용과는 맞지 않는 인터뷰가 들어가 좀 모호했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정화]

시청자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터뷰의 내용을 편집해 사용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이를 활용하는 것은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등 그 역할이 다양합니다. 인터뷰이의 내용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때로는 일부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사실 왜곡을 가져오거나 이 경우처럼 보도 내용과 상반돼 보도 맥락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신 복제를 단행하겠다는 것인데 인터뷰 내용을 잘못 넣은 것이죠. 인터뷰 등 자료 화면을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지해]

네. 두 번째 의견입니다. 10월 27일 소개된 [월드] 레이어 뉴스의 경우 화면을 3분 할해서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보기가 더 힘들었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또 [월드 프레임]의 경우 자막에 가려 주요 장면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채정화]

<오늘의 월드뉴스>의 자막 문제는 이전 평가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막은 내용 이해에 보조적인 도움을 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주요 장면을 가려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자막의 크기도 크게 해서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시청자들은 오히려 불편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사실 자막의 위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막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10월 27일 보도 중 “WHO, 백신패스 안돼” 라는 자막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백신패스를 국제여행 입국 조건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해당 자막은 오해의 소지가 크죠. 보도 내용을 정확하게 담으면서도, 다의적으로 또는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MC] <오늘의 월드뉴스>에서는 ‘오늘의 세계’와 ‘월드 브리핑’이라는 코너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너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채정화] ‘오늘의 세계’와 ‘월드 브리핑’의 아이템들을 보면 다른 코너들과 비교해서 소프트한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뉴스의 무게감을 덜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나 에피소드성 뉴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코너의 색깔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코너를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코너를 런칭하는 방법도 있구요.
월드 브리핑은 오늘의 세계보다는 단신 위주의 뉴스들을 다루고 있지만, 뉴스 아이템이 오늘의 세계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은 아이템들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신이지만 보도해야할 뉴스 개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아이템들도 보입니다.
특히 단신 보도에서 일반 월드뉴스 꼭지와 중복되는 아이템들도 있어서 반복되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세계와 차별화하면서도 월드 브리핑만의 색깔 찾기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MC] 네. <오늘의 월드뉴스>...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정화] <오늘의 월드뉴스>만의 문제이기 <오늘의 월드뉴스>를 포함해서 국제 뉴스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탈적인 에피소드 중심의 뉴스 아이템에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단신이긴 하지만 이란 신임 주지사 연설 중에 뛰어든 남자에게 뺨을 맞은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일본 마코 공주 결혼 소식도 사실 전달보다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모호한 감정적 표현들로 보도가 되었구요.
흥미 위주, 시청자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이러한 보도 아이템 선정과 보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년 전, 그 후와 같은 코너를 잘 살려서, 연속 보도, 심층 보도의 특색을 갖춘다면 <오늘의 월드뉴스>가 조금 더 건강한 국제 뉴스 콘텐츠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MC] 네. '터치 OBS' ...<오늘의 월드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작진들이 참고해야 할 체크포인트...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C.G백판

<터치 OBS 체크 포인트>

최MC] 네. <오늘의 월드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채정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최MC] 최지해 아나운서, 지난주에는 OBS시청자위원회가 열렸었죠?

최지해] 네. O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내용과 OBS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시청자위원회 10월 정기회의>

더빙

VCR

<시청자 의견>

더빙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이지은 박사

S/S (OBS 홈페이지)

유진영] OBS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MC]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터치 OBS'... 이어서 진행해볼 텐데요.
이지은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지해 아나운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S/S 터치 OBS {OBS 뉴스중심}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최지해] 매일 저녁 7시 30분 방송되는 <OBS 뉴스중심>을 점검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10월 27일과 10월 28일 뉴스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VCR < 'OBS 뉴스중심' 10월 27일 ~ 10월 28일 하이라이트 > 더빙

최MC]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7일 방송된
<OBS 뉴스중심>에서 제일 먼저 전한 뉴스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정부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뒷부분의
'앵커 포커스'에서도 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S/S 이지은 박사 /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이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에 대한 소식과 관련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13대 대통령인 만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중요한 소식이었음은 틀림없음. 그런 점에서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최대한
객관적,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이와는 또 다르게 앵커의 시선에서 현안을
전달하는 앵커포커스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어두운
기록을 짚어 준 점은 괜찮았다고 봄. 다만 앵커포커스의 제목과 앵커가 보도
끝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두환씨를 봤을 때 본 보도가 마냥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진 않은 듯했음.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참회하라는 메시지는 분명했는데, 해당 메시지가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을
향한 것인지, 전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혹은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무리를 이렇게 구성한 것은 이해되나, 일관된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구성상 더 매끄러웠을 것 같음.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여야 각 당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보도도 매일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보와 발언을 비롯해, 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요. 여야 후보간 5자 가상대결을 상정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 관련 보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지은]

여야 각 당의 행보나 발언들을 내보낸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한 쪽지에 너무나 비교되는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음. 물론 현재의 각 당의 행태가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당의 통합 프레임과 야당의 갈등 프레임이 극명하게 갈릴 경우 각 당의 이미지가 그러한 프레임에 갇힐 수 있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여 ‘신경전’, ‘돌직구’ 등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신자가 많다’, ‘구태 기득권 정치인의 전형이다’ 하는 등의 토론회 발언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여야 후보간 5자 가상대결을 상정한 여론 조사의 경우 OBS가 직접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핵심을 짚어 간결하게 전달한 듯함. 그리고 방송 뉴스 특성상 보도 시간의 한계로 많은 내용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도 말미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청자를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안내해준 것도 친절했음.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이슈 기획코너 ‘한 뼉 더’에서는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한 뼉 더’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지은]

비호감 경쟁이 역대급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는데, 사실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서로의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사용됨.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전 대선의 특징은 어떠했는지 혹은 그 전 대선의 비호감 경쟁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줘야 한다고 봄. 그리고 실제 그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높은 비호감도에 대한 수치의 원인을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개 사과 논란에 의한 것인지 선불리 언급한 것은 아닐까 함. 하지만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비호감도가 정치 혐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서 호감 경쟁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심어준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보임.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지난주에도 <OBS 뉴스중심>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최지해] 10월 27일 보도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사가 없는 서해섬 연평우체국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머물 관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숙소비로 월급의 3분의 1을 써야 하고, 없던 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는 시청소감을 여러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OBS의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관사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지 계속 후속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연평우체국의 열악한 상황을 방관한 경인지방우정청에선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는데... 어떻게 상황을 모를 수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좀 더 파고들어서 자세히 취재해 보도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MC] <OBS 뉴스중심>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열악한 연평우체국의 근무 환경을 고발한 보도...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지은] 연평우체국의 근무환경을 고발한 이슈야 말로 OBS가 지역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한 뉴스가 아니었나 함.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 주목하여 사회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 모범 사례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함. 다만 26일, 27일 보도에서는 연평우체국의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평우체국 직원의 인터뷰가 더 많이 인용되었는데,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더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의 인터뷰 인용도 더 필요할 것 같음. 연평우체국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해당 문제는 비단 연평우체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보다

심층적인 탐사보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음. 이 부분은 후속 취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함.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그밖에도요. 경기도 등록문화재,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인천 섬지역 주민들을 위한 뉴스 등 경인지역 관련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관심 있게 보신 보도는 무엇일까요?

이지은]

사회 참여적이고 공공의 중요성을 가진 보도 중에서 말씀 주신 보도들은 인천 지역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보도들임.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보도는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전한 보도였음. 정치, 경제, 사회 등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40초 내외로 짧게 전달되었는데, OBS가 시청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식을 전달하는 미디어로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그 외에도 인천시의 청년정책 보도 역시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용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 역시 흥미롭게 보았음.

최MC]

여러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의견을 더해주시길 보도가 있을까요?

이지은]

통계 수치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음. 27일 방송 중 미국 FDA 자문기구가 5세에서 11세의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전하는 보도에서 미국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 8,300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고 그 가운데 1백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음. 이때 미국 시민이 아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8,300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는 비율적 수치도 함께 제시해주었으면 함.

최MC]

지난 주 방송된 <OBS 뉴스중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이지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하신 후 클로징 멘트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최MC] 이번에는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추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클릭 OBS'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VCR	<클릭 OBS>	SOV
-----	----------	-----

VCR	<정말로>	SOV
-----	-------	-----

최MC] 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CR	후CM	SOV
-----	-----	-----

미디어 공감!

좋은 TV

■ 제437회 ■

- 방송일시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AM 8:50 ~
- 녹화일시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AM 10:05 ~
- 녹화장소 OBS CS1 스튜디오
- M C 최진봉 교수
- 패 널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
[터치 OBS I] 최지혜 아나운서 & 이미선 박사
[터치 OBS II] 최지혜 아나운서 & 조재수 교수
[클릭 OBS]

{미디어 공감! 좋은TV}

VCR-TITLE

{미디어 공감! 좋은TV}

출연자 위치: 김대희 기자 / 최진봉 MC

최MC] 안녕하세요~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진봉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며 방송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공개 방청 프로그램들이 방청석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제작이 중단됐던 해외 촬영 프로그램들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현장은 여건상 집단 확산의 우려가 늘 있는데요.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TV>... 첫 순서는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김대희 기자, 미디어 관련 소식...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CG백판! (자막 한줄씩 발생)

김대희] 이번 주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1 한국> ,
두 번째 키워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마지막 키워드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입니다.

최MC]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1 한국'

김대희]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1 한국>
입니다. 지난 6월,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디지털 뉴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그 조사결과 가운데 우리나라
이용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뉴스리포트 2021 한국’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 이용자의 디지털 뉴스와 미디어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인데요. 뉴스 신뢰도는 32%로,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고, 신뢰도 상승폭이 세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뉴스 신뢰도의 전반적인 상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정보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경우 ‘뉴스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였으며, 진보의 경우는 36%로 답했는데... 46개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뉴스 전반에 대해 비교적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언론사가 사회 및 정치적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에선 “언론사는 모든 이슈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MC] 뉴스 신뢰도는 좀 상승했지만, 공정성 부분에 있어선 회의적인 답변이 많아서요. 국내 언론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뉴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본 내용도 있었다고요?

김대회] (네, 뉴스 이용자들이 지역뉴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코로나19에 관한 지역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날씨’, ‘주택 및 부동산 정보’, ‘지역 경제뉴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지역정책이나 지역범죄에 대한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답)

최MC] 지역 언론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뉴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참고해서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짧게 마무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김대희]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입니다. 햄버거, 피자, 콜라, 컵라면 등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품 광고는 어린이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전반에서 내보낼 수 없게 제한됩니다. ‘미디어스’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인서트!

햄버거·피자 광고,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제한

정부가 어린이들의 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광고 제한 시간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맞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오후 5~7시에 방송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시청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자율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MC] 아동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해서요. 오후 5~7시 사이에 햄버거, 피자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일괄 제한하던 것을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김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김대희] (어린이가 보는지 안 보는지와 상관 없이 오후 5~7시 모든 프로그램에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린이가 안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광고를 허용하고, 시간대 제한을 푸는 대신 만화나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광고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이 나와 봐야하겠지만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최MC] (짧게 마무리)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김대희]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토론회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D저널'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인서트!

"시청권 훼손" · "규제 강화" 우려 동시에 나온 방송광고 규제 개편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를 골자로 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방안은 광고유형 단순화와 3단계 규제체계 적용 등이 핵심인데요. 세부 규정 방안에는 △방송광고 일총량제 적용 △오락 장르에 한해 제목광고 허용 △간접광고·협찬 통합 규제 △지역·중소방송사를 대상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두고 시청권 침해 우려와 규제 완화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방송 시장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청권 보호가 확장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 “방송 공공성의 마지막 독을 허무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사업자 쪽에서는 “방송사들은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데, 신유형 광고를 조금 풀어주겠다는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방통위 측은 “광고 효과를 주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간주해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시청권 보호 장치를 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광고 유형과 형식 규제는 다 걷어내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MC]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니... (짧게 마무리)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VCR-TITLE

<터치 OBS>

SOV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이미선 박사

최MC]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 보는 <터치 OBS> 순서입니다. OBS 시청자평가원이신 이미선 박사, 그리고 최지해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먼저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S/S 최지해 아나운서 (미디어 공감! 좋은TV)

S/S 터치 OBS {오늘은 경인세상}

11월 1일 방송 평가

최지해]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경인지역의 다양한 소식은 물론 특별한 여행지나 화제의 인물과 장소 등을 만나보는 <오늘은 경인세상>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VCR

< '오늘은 경인세상 ' 11월 1일 방송 하이라이트 >

더빙

최지해] 지난 11월 1일에는 가수 소란 씨와 인천의 섬나들이를 떠나봤고, 또 경기도 평택과 군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최MC] 네. 그럼 먼저 <오늘은 경인세상> 지난 11월 1일 방송...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가부터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오늘은 경인세상>은 월요일 저녁 5시 반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인지역의 여행지나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여행을 가볼 수도 있고 지역에 관련한 소식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자 없이 코너들이 이어지다보니 하나의 방송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각 코너마다 성격 차이가 커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코너도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코너나 출연자가 있을 때 소개하는 단계가 있으면 좀 더 조화로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MC] <오늘은 경인세상> 지난 봄 평가와는 아이템이나 내용들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비교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미선] 8월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을 찾아서 소개하는 코너와 인천 안전캠페인 그리고 이번에 우리동네 핫클립 등 다양한 코너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여행이나 전통시장 구경, 체험, 요리 등 개인이 즐길거리들이 많이 소개되었었는데요) 비교해보자면 가을부터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회적 기업 등 조금 더 우리사회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코너들로 시선이 다양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풍요도 필요하고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나름대로 코너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들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날 안전캠페인 코너나 우리동네 핫클립 같은 코너들은 그 형식과 진행방식에 있어서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MC] (짧게 정리해주시고)
그 중에서 한 코너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지해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죠?

최지해] 네 아홉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트로트 가수 소란 씨가 특별한 휴가를 맞아 인천의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었던 힐링 여행...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VCR 인서트!

코너 <월간 섬 도시여자의 섬 나들이>

최MC] 네...서해의 삼형제 섬이죠. 신시모도섬에서 보낸 소란 씨의 하루를 담은 이 코너...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미션]

여행 코너는 정보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코너지요. 선착장, 바이크 대여소 요금이나 이용시간 등 정보도 함께 소개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연예인 소란씨가 신시모도 여행을 가서 섬의 곳곳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편안하게 진행도 잘 해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정보를 시청자에게 교육하듯이 전달해서 형식적인 방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날 출연자는 여행 내내 각 장소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여행의 설레는 느낌과 자연과 교감하는 기분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셔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여행이었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MC]

또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한 코너도 있었는데요. 이 코너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션]

이 코너는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나눔과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소개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평택시에 위치한 양서류 생태박물관과 군포시에 있는 전통미장기술 명장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양서류 생태박물관의 경우 단순히 구경하는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 외에도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 증진 등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중 평택의 생태박물관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되었는데요, 예비라는 단어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가능한데요. “초보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 일수 있고, “준비한 여분”이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에 따른 분류인지,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해졌다면 시청자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MC]

<오늘은 경인세상>...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최지해] 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앞서 다뤘던 <월간 섬 도시여자의 섬 나들이>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 코너의 경우 시작 부분에 코너에 대한 설명이나 타이틀이 전혀 없이 바로 건물 외경으로 시작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소란 씨와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기존 <오늘은 경인세상>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된 적이 있긴 한데요. 이날 방송의 경우 반려동물 이야기인지, 여행 코너인지 조금 모호하기도 했다는 의견...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선] 이날의 출연자인 소란씨가 9마리나 되는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려동물들을 소개하고, 간식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까지 시키는 모습이 계속되면서 이 코너가 반려동물 이야기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힘드니 여행으로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았는데요. 총 17분인 코너에서 무려 6분 넘게 집에서 진행되면서 코너의 성격도 모호해지고 그러다보니 정작 코너의 중심인 여행지, 신도, 시도, 모도, 이 세 섬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각 섬에서 한가지씩밖에 소개를 못했고 특히 모도가 차박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말로만 소개하고 지나가서 아쉬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차라리 이분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갈만한 곳이라든지, 즐길거리, 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지켜야할 에티켓 같은 것들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여행의 테마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해] 다음 의견입니다. 이 날 방송된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또한 자료화면만 사용해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 구성이 아닌, 해당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구성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선] 저도 이 코너를 보면서 <오늘은 경인세상>이 아니라 무슨 사업보고서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에 있어도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용어와 형식이 아니었고 화면도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요즘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에 지쳐서 ‘Zoom비’가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코너도 정보들만 나열되어서 지루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배경화면이 이런 지루한 수업 같은 느낌을 더해주었는데요. 해당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흥미도 생기고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개그맨 정범균 씨가 인터뷰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이 자연스럽게 가끔 실수하기도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내용전달에만 집중을 하면서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작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일반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해]

네. 다음 의견입니다. 코너 <우리 동네 Hot Clip>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천시에서 제작한 한 동영상 소개해 주었는데요. 내용이나 의미 면에서는 돋보였지만, 영상의 윗부분 자막이 겹치는 등 화면상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별도의 구성없이 인천시에서 제작한 그 영상만 그대로 보여준 점도 좀 아쉬웠다는 의견...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선]

우리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작은 편견이 결국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문화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송에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주제로 하는 코너가 생겨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에 아쉬운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천시가 제작한 영상을 <오늘은 경인세상> 틀에 끼워 넣다보니까 상단에 자막이 겹치기도 했고요, 음향 상태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의 제목이 ‘외국인을 찾아라’로 진행자들은 스튜디오 뒤에 있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미션을 어떻게 해내는 지를 통해서 외국인을 찾는 게임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진행자들은 인천광역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문화 가정 혼인 건수를 맞추는 퀴즈를 풀어야 해서 내용이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형식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미있는 시도였던 만큼 다음에는

OBS에서 직접 안정적인 구성으로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코너를 제작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최MC] 해당 영상의 내용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은 경인세상>에 맞는 재구성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경인세상>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션] <오늘은 경인세상>에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보를 쭉 나열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시청자들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진행자 없이 코너들을 나열하다보니 친절함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각 코너를 소개하면서 왜 이 정보를 전달하는지, 왜 '지금'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등 방송의 의도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면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넓고 깊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MC] 네. '터치OBS' ...<오늘은 경인세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작진들이 참고해야 할 체크포인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C.G백판

<터치 OBS 체크 포인트>

최MC] 네. <오늘은 경인세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이미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최MC] 최지해 아나운서, 지난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이 OBS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죠?

최지해] 네. O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조재수 교수

S/S (OBS 홈페이지)

최지해] OBS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MC]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터치 OBS'... 이어서 진행해볼 텐데요.
조재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지해 아나운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S/S 터치 OBS {OBS 뉴스중심}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최지해] 매일 저녁 7시 30분 방송되는 <OBS 뉴스중심>을 점검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11월 4일과 11월 5일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MC]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4일 방송에서 첫 번째 순서로 전한 보도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 그리고, 2주간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다음날엔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발동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S/S 조재수 중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

조재수] OBS경인TV에서는 경인지역의 확진자 및 특별 방역에 관한 보도를 함으로써 OBS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두천, 부평 등의 확진자에 관한 뉴스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이 강남구였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입시가 코앞이라 수능특별방역이라는 뉴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 지역인 경기와 인천관련 화면과 내용으로 보도하셨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OBS 뉴스 홈페이지의 다시보기를 보니... '경인코로나 어떻습니까'라는 꼭지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영상을 보면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당황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제목대로 '경인코로나 어떻습니까'라는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백신 의무화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기사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백신 의무화 관련 갈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에서는 미국의 상황이 아닌 우리나라 특히 경인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지난 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죠. 그래서, 관련 소식을 주요 보도로 전했고요. 윤석열 후보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관련 보도는 어떻게 평가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재수]

11월 5일은 국민의 대선후보 결정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대상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질문내용에서 다른 지상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전 인터뷰 질문안이 교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경인지역에 특화된 질문이 준비되고, 윤석열 후보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최근 보도량이 급증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요소수 품귀 현상' 인데요.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물류 대란까지 우려되며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월 4일과 5일 <OBS 뉴스중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재수]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요소수 관련 보도가 갑자기 등장해서 의아하다

라는 반응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상과 모두 요소수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 OBS경인TV와이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지상과 메인뉴스에서는 시장의 현재 상황, 부족으로 나타난 문제점 등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발생된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던데 반해 OBS경인TV는 한 건의 보도를 제외하곤 정부의 입장, 대응 등 정부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전하는 보도였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다른 지상과는 왜 현장의 상황에 더욱 집중하였는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MC] 지난주에도 <OBS 뉴스중심>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죠?

최지해] 11월 4일 보도 가운데 ‘군공항 이전’ 갈등을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슈기획 코너 ‘한 뼉 더’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문제를 조명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해줘 사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일반 리포트가 아닌 기획코너인 ‘한 뼉 더’에서 다룬 만큼 양측의 의견을 알아보는데서 나아가... 갈등을 풀 해법과 대안이 무엇인지 까지 깊이 있게 취재해 전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MC] 네, ‘한 뼉 더’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두 지자체의 갈등 문제를 다뤘는데... 시청자 분께선 내용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뼉 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재수] 시청자 분께서 응원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을 더 담아달라는 애정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한 뼉 더’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코너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뼉 더’를 이해하기 위해 5번 정도 봤는데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사 도입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각 지자체의 시민단체 인터뷰를 교차로 편집해서 논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관계가 국토부의 입장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사작성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OBS 뉴스중심>에는 탐사전문매체인 '셜록'과 함께 진행하는 '진실을 캐다'라는 공동 탐사보도 코너가 있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진실을 캐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도 있었다고요?

최지해] 네, 11월 5일 방송된 '진실을 캐다'에 대한 의견을 시청자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진실을 캐다'는 그동안 화요일에 방송됐는데 금요일에 방송돼 의아했고, 요일이 바뀐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이상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연속보도 코너이기는 하지만... 이전 보도와의 간격이 크고, 그 보도를 보지 못한 시청자를 위해 앞서 전했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다시 전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MC] '진실을 캐다'의 방송 요일이 바뀐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했고요, 연속보도인 만큼 이전 보도 내용에 대한 정보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시청자 분들이 주셨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재수] 앞서 말씀드린 '한 뼉 더'와 '진실을 캐다'와 같은 심층보도는 OBS경인TV 뉴스의 가치를 높이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청자분들의 의견 또한 긍정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내용의 문제보다 형식의 문제,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뉴스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의견처럼 시리즈로 구성되는 보도가 연속해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앞서의 보도를 좀 자세히 요약해주면 보도를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성의 문제인데, 원칙은 시리즈로 진행되는 기사는 한 번에 모두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보도의 예고와 요약정리와 같은 방식의 물리적 접착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여러 보도들을 살펴봤는데요. 11월 4일과 5일 <OBS 뉴스중심>에서 또 눈 여겨 보신 보도,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조재수] '최소 권한이라도... 출범 앞두고 속타는 특례시'라는 기사와 '훈맹정음'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특례시 관련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는데, 경인지역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민감하고 시의적절한 기사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좋았습니다. 향후에 ‘한 뼉 더’와 같은 심층보도를 진행하면 시청자들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훈맹정음은 이전에 ‘한 뼉 더’에서 논의했던 보도였습니다. 후속보도로써 가치가 충분한데, 이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사간 연계활동이 필요해보입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지난 주 방송된 <OBS 뉴스중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조재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하신 후 클로징 멘트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최MC] 이번에는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추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클릭 OBS’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VCR	<클릭 OBS>	SOV
-----	----------	-----

VCR	<정말로>	SOV
-----	-------	-----

최MC] 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CR	후CM	SOV
-----	-----	-----

미디어 공감!

좋은 TV

■ 제438회 ■

- 방송일시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AM 8:50 ~
- 녹화일시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AM 10:05 ~
- 녹화장소 OBS CS1 스튜디오
- M C 최진봉 교수
- 패 널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
[터치 OBS I] 최지혜 아나운서 & 채정화 박사
[터치 OBS II] 최지혜 아나운서 & 김국래 박사
[클릭 OBS]

{미디어 공감! 좋은TV}

VCR-TITLE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MC] 안녕하세요~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진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국 광역시·도별로 1개씩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최근 건립 일정이 확정`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도 1곳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니깐요, 거주지 인근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TV>... 첫 순서는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김대희 기자, 미디어 관련 소식...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CG백판! (자막 한줄씩 발생)

김대희] 이번 주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포털에서 사라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 ,
두 번째 키워드는 <답답함 토로한 국내 OTT>,
마지막 키워드는 <'언론인 살해에 대한 민중법정'> 입니다.

최MC]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포털에서 사라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김대희]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포털에서 사라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입니다. 국가기간통신사 ... 바로 '연합뉴스'인데요. 기사형 광고 문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강등을 결정해, 어제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언론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네요. '미디어 오늘'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포털 강등 연합뉴스 후폭풍, 100억 대 손실 더해 영향력 급감까지

어제부터 연합뉴스의 기사는 포털 뉴스란, 모바일 구독 등 뉴스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없고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되자 연합뉴스는 2000여건에 달하는 기사를 삭제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는데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공영언론의 책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 사태는 '연합뉴스도 제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계에 강력한 신호가 됐는데요. 연합뉴스 포털 노출중단 결정 전후로 20여개 콘텐츠 제휴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 사업을 중단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휴평가위 스스로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휴평가위는 군소 매체의 퇴출을 자주 결정하면서도 대형 언론에는 퇴출이나 강등 결정 사례가 미미해 대형 언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대형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최MC]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매체에 '숨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에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언론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측에선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김대회] (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다시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지위를 얻으려면 1년 뒤에 제휴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연합뉴스 입장에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는 포털을 통해 성장해왔고, 포털에서 연 10~20%대 점유율을 유지해오며 막강한 영향력을 얻게 됐습니다. 포털에서 사라지며 입을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1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

최MC]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원 대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도 언론윤리와 법을 잘 지켜야하는 곳...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 기울여야... (짧게 정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답답함 토로한 국내 OTT

김대희]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답답함 토로한 국내 OTT>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지난 주 애플TV+와 디즈니+까지 국내에 진출했는데요.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국내 OTT들이 규제 완화와 조속한 진흥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PD저널'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디즈니까지 오는데 정부·국회 뭐하나' 답답함 토로한 국내 OTT

웨이브·티빙·왓챠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담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자’ 신설이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입법예고된 뒤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자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원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망 사용료와 관련한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켜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최MC] 수세에 몰린 토종 OTT 사업자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체감할 만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군요?

김대희]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했는데요.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대답)

최MC] 국내 OTT 업체들로서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짧게 정리)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언론인 살해에 대한 민중법정’

김대희]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언론인 살해에 대한 민중법정>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언론인 살해 사건 10건에 9건 꼴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국 언론인의 살해를 방관한
정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민중법정’이 열립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세계 언론인 살해 사건 ‘국제 민중법정’ 열린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언론인보호위원회, FPU 등 국제 언론자유 단체 3곳이
합동으로 ‘언론인 살해에 대한 민중법정’을 네덜란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중법정은 향후 6개월 간 스리랑카와 멕시코, 시리아 등 정부에
지속되는 언론인 살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의 청문회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들 정부는 언론인 보호에 실패하고 살해자를 방조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중법정 사무총장은 재판 시작을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사회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직업인에 대한 박해는 그저 개인적 범죄 사건의 단순한 총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법정의 재판 첫날은 공개 청문회를 진행됐는데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독립언론의 공동대표가 언론 탄압 목격자로 법정에
비대면으로 출석해 정부 비판 보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증언했고, 사우디
정부를 비판해오다 암살된 언론인의 약혼자도 증언대에 올라 “우리는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MC] 지난 2006년부터 2020년 사이 전 세계에서 120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됐으며 이들 사건 10건 중 9건이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정리)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VCR-TITLE

<터치 OBS>

SOV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채정화 박사

최MC]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 보는 <터치 OBS> 순서입니다. OBS 시청자평가원이신 채정화 박사, 그리고 최지해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먼저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S/S 최지해 아나운서 (미디어 공감! 좋은TV)

S/S 터치 OBS {경이로운 세상}

11월 12일 방송 평가

최지해]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건강과 여행, 음식 등 현대인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이로운 세상> 인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VCR

< '경이로운 세상' 11월 12일 하이라이트 >

더빙

최지해] 네. 지난 11월 12일 방송에서는 천년고도 경주를 찾았는데요. 학창시절...수학여행지로 기억하는 경주가 아닌,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경주의 핫플레이스를 둘러봤고요.
또 피부건조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MC] 네. 그럼 본격적인 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로운 세상>이 11월 12일 방송부터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채정화] <경이로운 세상>은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처음 모니터링을 했을 때보다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자가 남녀 MC 2명이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프로그램의 생동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구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프로그램이 한층 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모니터했던 이후로 지난 6개월 동안에도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재편한 코너는 기존 여행 콘셉트의 코너를 진행 방식에서 조금 달리해서 <여행에 빠지다>로 재탄생했고, 장수 코너 <건강만사성> 또, 새롭게 선보이는 <1분 건강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보다 코너는 여행과 건강이라는 콘셉트에 큰 비중을 두고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고, 균형감있게 구성이 되었지만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여행에 빠지다>의 여행이라는 컨셉에 비해 지루하다는 인상과, <건강만사성>은 피부 건조라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했지만 내용이 평이하게 구성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최MC] (짧게 정리해주시고)
요즘 정보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코너가 '건강' 코너인데요.
<경이로운 세상>에서는 '건강만사성'이란 코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어떠셨는지요?

채정화] 가을철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피부 건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피부 건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과 피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피부 건조의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보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실제 피부 건조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는 너무나 평이한 분이셔서 저 정도는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공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부 관리를 잘 하신 분의 경우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지만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건강 비법이라는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MC] 자...다음으로 살펴볼 코너는 최지해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죠?

최지해] 네.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로 떠난 여행인데요. 수학여행지에서 만난 천편일률적인 장소가 아닌, 요즘 경주에서 핫한 장소를 2명의 출연자와 함께 떠난 코너...<여행에 빠지다>인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VCR 인서트!

코너 <여행에 빠지다>

최MC] 네...마지막에 들러본 월정교에서 바라본 노을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행에 빠지다>...이 코너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명의 여행메이트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나 진행 등은 어땠는지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채정화] 요즘 유명 유튜버 등 온라인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TV방송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빈번해졌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스타성과 인기를 활용해 시청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이죠.

인플루언서들의 등장만으로도 일단 프로그램이 젊어진 느낌, 그리고 두 여행메이트가 첫 촬영이었지만 둘의 키키타카가 자연스러워 시청자분들이 어색함을 느낄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타깃층이 누구냐 라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간대에 주로 시청하는 분들은 중장년층 주부들이 많을 텐데요. 여행메이트로 나선 인플루언서들은 10대의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이들이고, 여행의 콘셉트도 출연진의 연령대의 부합하는 대화 내용과 여행지 선택이어서 프로그램 타깃층에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새로운 잠재 시청자층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 타깃층에 대한 고민, 이들에게 어떻게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소구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최MC] 진행자들과 시청 타킷층과의 언발란스...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너에서 소개해 준 경주의 여행지들은 어땠는지, 또 그 외 내용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평가 부탁드립니다?

채정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에 빠지다>는 한층 젊어졌고, 경주의 핫스팟을 경험하고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어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TV에 최적화된 전문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20분의 시간을 강약을 조절하며 끌여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진행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영상에 담긴 곳들의 정보나 위치, 교통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재미 요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코너를 마친 후 MC가 경주편이 2편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프로그램 시작 전에 1편과 2편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먼저 소개했다라면 프로그램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MC] <경이로운 세상>...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최지해] 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행에 빠지다> 코너에서 월정교를 거닐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를 자막으로 설명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 자막의 양도 많았고, 읽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삽화처리 혹은 여행을 떠난 출연자들이 직접 설명을 해 주는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였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채정화] 영상은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막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자막이 오히려 아름다운 영상을 가려서 시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출연자 중 한명이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이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옥의 티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자막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때로는 여백의 미가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혜]

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코너 <건강만사성>에서 다룬 피부건조증 탈출 방법은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콜라겐과 연결시키는 구성 역시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반복해 방송하고 있는 만큼 식상한 내용이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채정화]

시청자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이한 주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식, 정보들이 담겨야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콜라겐에 관한 정보는 이미 식상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연진이나 프로그램 내용상에 콜라겐 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 건조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다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 역시 그래프 활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을 과다하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한 그래프와 자막은 오히려 시청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MC]

(짧게 정리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짧게 선보인 <1분 운동법>이란 코너도 있었는데요. 이 코너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채정화]

새롭게 선보인 <1분 운동법>은 짧은 영상으로 매우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요즘 숏폼 영상들이 인기인데, 굳어더기 없이 1분 운동법만 별도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MC] 자, <경이로운 세상>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채정화] 오늘 <경이로운 세상>을 모니터 하면서 제가 일관되게 목표 타깃층에 맞는 구성인지, 내용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행에 빠지다>와 <건강만사성> 출연진의 성격에서부터 두 코너에서 다루는 내용의 차이가 큼니다.
목표 타깃층이 높다고 해서 올드한 콘셉트의 내용을 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구요. 목표 타깃층에 소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젊은 감성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 시청자들의 니즈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연진의 연령대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셉트 구성도 가능할 거구요.
목표 타깃층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 제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MC] 네. '터치 OBS' ...<경이로운 세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작진들이 참고해야 할 체크포인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C.G백판

<터치 OBS 체크 포인트>

최MC] 네. <경이로운 세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채정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최MC] 최지해 아나운서, 지난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이 OBS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죠?

최지해] 네. O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시청자 의견>

더빙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김국래 박사

S/S (OBS 홈페이지)

최지해] OBS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MC]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터치 OBS'... 이어서 진행해볼 텐데요.
김국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지해 아나운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S/S 터치 OBS {OBS 뉴스중심}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최지해] 매일 저녁 7시 30분 방송되는 <OBS 뉴스중심>을 점검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11월 10일과 11일 뉴스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VCR

< 'OBS 뉴스중심' 11월 10일 ~ 11월 11일 하이라이트 >

더빙

최MC]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며
수급 상황과 대책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0일과
11일 <OBS 뉴스중심>에서도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된 보도들을 여러
꼭지에 걸쳐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S/S 김국래 국제관계학 박사

김국래] (뉴스중심의 요소수 보도에 대한 의견 추가해주시고, 아래 내용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대응책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언론, 특히 수구언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비교적

신속했습니다. 만약 평시에 정부가 이런 류의 문제로 시장에 개입하고 사안마다 조정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자본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거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마다 전략물자로 분류해서 정부가 유통이나 판매량, 금액까지 정해야 된다는 건지, 언론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MC] 이슈기획 코너인 ‘한 뼉 더’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단했는데요. ‘한 뼉 더’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국래] ‘한 뼉 더’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이번 사태를 부추겨 사회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 언론에 대한 비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오비에스 뉴스도 시류에 떠밀리면서 일정하게 동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사태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보도가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이렇게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 그들의 발언과 행보 등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OBS 뉴스중심>의 대선 후보, 그리고 정치권 관련 보도들은 어떻게 평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국래]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다보니 상대당,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깎아내리기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경쟁 후보 흠집내기와 다른 정당 후보 깎아내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여기에 언론도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대선판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요 후보들의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현상도 이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런 지점에서는 오비에스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언론들이 어떤 보도행태를 보이던지 오비에스는 이번 대선 후보와 정당간의 정책대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대선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OBS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의 첫 보도도 바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묻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어떠셨나요?

김국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여론조사가 넘쳐나고 있고 심지어는 법률이나 행정적 판단도 여론조사를 하는, 누구의 구속에 대해서 잘했다/잘못했다 하는 식의 여론조사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정국이다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오비에스의 여론 조사 결과도 수많은 매체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저 평이하고 특색없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정치권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대선 정국에서는 더 예민해지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비에스에서는 다른 언론매체에서 하는 평이한 방식의 여론조사, 각 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식이 아니라 각 정당간, 후보간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MC]

지난주에도 <OBS 뉴스중심>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죠?

최지해]

11월 10일 보도 가운데서요. 매운 음식을 어린이 급식에 내놓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진정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에선 뜨거운데 단신으로만 짧게 전해 아쉬웠다는 시청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 전했다면 좋았겠다는 의견 더해주셨고요. 경기도 고양시가 하늘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드론택시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뉴스였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드론택시 노선으로 검토되는 구간의 경우 자료영상이나 C.G로 표시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최MC]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보도에서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드론택시 관련 보도에선 검토 중인 운행 구간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했다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시청자 분들이 남겨주셨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국래]

네, 운행 구간에 대한 정보의 시각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놓쳤습니다. 드론 택시 관련 보도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마디 더 보태자면, 먼저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라는 목표는 고양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목표이고 이 목표에 따라 각 지자체도 자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가 드론택시의 노선을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도의 서두에서는 출퇴근용 택시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고양시에서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인천의 계양구와 서구 밖에 없는데 과연 이 노선을 출퇴근 노선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고요, 경인 아라뱃길을 드론의 항로로 이용한다는 계획은 중앙정부와 인천, 김포 등 걸쳐있는 지자체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계획인데 고양시가 이 노선을 출퇴근용 드론택시로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종합적인 취재가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경인지역 관련 보도들에 대해 더해주시길 의견이 있을까요?

김국래]

저도 다른 시청자들처럼 제가 사는 지역과 관련된 보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경인지역 방송인 오비에스의 뉴스 구성이나 비율이 일정하게 지역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비율이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수도권은 많은 부분에서 생활권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중앙과 지역을 분리하기보다는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만큼 보도의 비율이나 숫자를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황금비율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지난 주 방송된 <OBS 뉴스중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김국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하신 후 클로징 멘트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최MC] 이번에는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추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클릭 OBS'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VCR	<클릭 OBS>	SOV
-----	----------	-----

VCR	<정말로>	SOV
-----	-------	-----

최MC] 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CR	후CM	SOV
-----	-----	-----

미디어 공감! 좋은 TV

■ 제439회 ■

- 방송일시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AM 8:50 ~
- 녹화일시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AM 10:05 ~
- 녹화장소 OBS CS1 스튜디오
- M C 최진봉 교수
- 패 널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
[터치 OBS I] 최지혜 아나운서 & 유우현 교수
[터치 OBS II] 최지혜 아나운서 & 천현진 박사
[클릭 OBS]

{미디어 공감! 좋은TV}

VCR-TITLE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MC] 안녕하세요~ <미디어 공감! 좋은TV> 최진봉입니다.
가짜뉴스와 떠도는 각종 루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연령대와 SNS 활용도에 따라 미디어 비판능력이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NS를 많이 쓸수록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50대를 넘어서면 정보의 사실성과 객관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미디어 비판능력 점수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미디어 공감! 좋은 TV>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순서는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김대희 기자, 미디어 관련 소식...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 CG백판! (자막 한줄씩 발생)

김대희] 이번 주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언론의 포털 입점 기준> ,
두 번째 키워드는 <유튜브 흥행 공식 가져온 방송사들>,
마지막 키워드는 <“이슈는 사라지고 갈등과 논란만”> 입니다.

최MC]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지역언론의 포털 입점 기준

김대희]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언론의 포털 입점 기준>
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최근 콘텐츠제휴 지위
대상이 되는 지역언론사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심사기준’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협회보’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인서트!

제평위 지역언론 입점심사, 무엇을 바꿔야 할까

지난주 '지역언론 포털 제휴 선정 결과와 지역언론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평위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 언론사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경인지역의 경우 지원한 매체 모두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격 매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다른 8개 지역만 결정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 전문가는 이번 지역언론 제휴심사의 한계로 '지역규모를 고려지 않은 권역배분'을 거론했는데요. "지역별로 점수 격차가 분명 있을 텐데 단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CP 제휴에 동일한 지위로 입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역시 문제점으로 언급됐는데요. '매월 200건 이상의 기사 생산량과 이 중 30%의 자체기사 비율, 다시 자체기사 중 80% 이상의 지역자체기사'란 기준을 둔 평가방식에선 시작부터 특정 성격의 매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신문사와 지역방송이란 상이한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 지역신문의 우위가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 건데요.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지역언론 제휴심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 2회 진행하는 뉴스제휴심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지역언론 제휴심사를 계속해야 하고 △제휴심사 기준과 항목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며 △제평위 구성과 권한 변화를 통해 최근 언론현업 5단체가 추진 중인 언론사 통합 자율기구 참여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최MC]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역 언론사들로서는 포털 입점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OBS도 지원을 했는데... 인천·경기권역에선 합격 매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대희] (인천·경기권역 심사는 내년 3월 이후 출범할 다음 기수의 제휴평가위원회가 진행할 예정... 대답)

최MC] 시청자들이 지역 뉴스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짧게 정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유튜브 흥행 공식 가져온 방송사들

김대희]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유튜브 흥행 공식 가져온 방송사들>입니다. 방송사들이 유튜브에서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 트렌드를 앞 다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반응은 어떨까요? 성패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PD저널'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유튜브 흥행 공식 가져온 방송사들, 성패는 한끗 차이

웹예능 <가짜사나이>가 신드롬을 일으킨 뒤 채널A가 발 빠르게 내놓은 <강철부대>는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았고, SBS도 '세계최초 특수요원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표방하면서 생존 서바이벌 붐에 가세했습니다. MBC는 유튜버와 손잡고 기획·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영향력이 커지고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생존 게임 장르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유행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의 제작규모나 역량은 유튜브보다 뛰어나지만, 현재 유행하는 포맷에 무작정 편승하거나 표절 시비 문제에 부딪히는 문제가 여전히 종종 있다"며 "방송사 고유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흥행 공식이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그대로 통하지는 않아서...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1~2%대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MC]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이 TV에 진출하며 완전히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종의 문화 역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대희] (네, 그동안은 유튜브에서 TV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재생산하고 패러디했는데... 이제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TV에 공급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선함이라는 무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TV와 유튜브 사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청자들의 의견 역시 존재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제약 없이 펼쳐지는 콘셉트나,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TV에 그대로 담아내기는 위험성이 따라 풀어야할 숙제... 대답)

최MC]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은 문화현상의 하나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엄연히 매체가 다른 만큼, 콘텐츠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방송사의 진지한 고민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S/S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이슈는 사라지고 갈등과 논란만”

김대희]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이슈는 사라지고 갈등과 논란만”>입니다. 어떤 이슈가 사라지고, 어떤 갈등과 논란만 남았다는 걸까요. 바로,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구분을 의미하는 ‘젠더’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미디어스’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VCR 인서트!

사이버블링에 '젠더 갈등·논란' 기사 제목짓기

서울YWCA 주최로 '젠더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집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기자는 올 한 해를 “젠더 이슈는 사라지고 젠더 갈등과 논란만 남은 한 해였다”고 정의했습니다. 서울YWCA가 젠더 이슈 보도 기사 1000개를 분석한 결과, 성차별적 기사는 88건인 데 반해 성평등적 기사는 29건에 그쳤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립구조 강조하며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특정 성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성차별적 기사 유형이 많았습니다. 집담회 참가자들은 젠더 이슈를 ‘논란’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갈등이 아닌데 갈등으로 명명하는 언론 보도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제목에 ‘논란’으로 명명하는 건 따옴표 저널리즘처럼 언론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목짓기라고 생각한다” “특정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의견을 언론이 담아내니 서로의 화를 돋우는 형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MC] (짧게 정리하고)
<김기자의 미디어 체크>... 김대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VCR-TITLE

<터치 OBS>

SOV

출연자 위치: 최지혜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유우현 교수

최MC]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 보는 <터치 OBS> 순서입니다. OBS 시청자평가원이신 유우현 교수, 그리고 최지해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는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먼저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S/S 최지해 아나운서 (미디어 공감! 좋은TV)

S/S 터치 OBS {공간다큐 만남}

11월 16일 방송 평가

최지해]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밤에 방송되는 <공간다큐 만남>인데요. 경인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다큐 만남>...화면으로 만나보시죠.

VCR

< '공간다큐 만남' 11월 16일 하이라이트 >

더빙

최지해] 네. 지난 11월 16일 방송에서는 '경기도의 하와이'라 불리는 대부도로 떠나봤는데요. 서해가 주는 풍성한 갯벌체험부터 아름다운 낙조까지...또 대부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지락을 비롯해 섬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대부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최MC] 네. 지난 8월 첫 방송을 시작해...벌써 16회를 맞고 있는 <공간다큐 만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우현] 오랜만에 사람 내음 물씬 나는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 시청 후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가를 보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다소 과하다 할 정도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연출을 가져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간다큐 만남>과 같은 프로그램이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해 보일 수 있지만, 방송 내내 재미와 흥미적 요소를 통해 과몰입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볼 수 있었던 점은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MC] 다소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인 요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편안하고 따뜻하게 볼 수 있었다는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공간다큐 만남>...제목에서 느껴지듯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공간과 또 그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에 이런 기획의도가 잘 녹아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우현] 이날 방송의 구성을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마치 시간 여행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사리포구와 서민의 애환을 신고 달리던 수인선 협궤열차 모습을 다양한 인터뷰와 자료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협궤열차를 이용하던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내레이션과 생경한 영상 자료는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과거 사리포구 근처에 살면서 포구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김용호 화가가 이런 말을 하죠.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잊혀지고, 잊혀진다는 건 조금 슬픈 이야기다.” 기억해야 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잊혀지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결국 <공간다큐 만남>의 기획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날 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비교적 잘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최MC] (간단히 정리해주시고)
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안산이 품고 있는 섬...대부도를 찾았는데요. 아이템 선정이나 내용 그리고 구성 등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유우현] 경기도의 하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도는 안산의 대표적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부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과 먹거리를 소개하는 아이템 선정은 소재의 대중성과 흥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 초반에는 과거 안산 대부도 지역에 대한 역사적 고증에 초점을 맞추다가 점차 현재로 넘어오면서 관광 명소와 먹거리 위주로 구성이 흘러간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물론 식당이나 펜션을 운영하는 대부도 주민들의 삶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역의 명소나 먹거리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생활 정보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주민들의 삶을 프로그램에 녹여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MC] 네. 지역이나 장소를 소개하면서 명소나 음식점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도 좀 더 주민의 삶을 담아낸 구성이나 차별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이런 다양한 내용 중에 대부도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최지해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죠?

최지해] 네. 매일 직접 잡아온 싱싱한 고기로 손님들에게 회를 제공하는 횃집 부부의 이야기부터 갯벌천국인 대부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지락을 까며 생활하는 주민들까지...서해가 주는 넉넉함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함께 만나보시죠.

👁 VCR 인서트!

가을바다 선물이 우수수

바스락 바스락~바지락 까는 날

최MC] 네. 대부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이 부분...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우현]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두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흔넷이라는 고령에 구부정하게 앉아 바지락을 까고 계시던 할머니의 환한 웃음입니다. 갯벌에서 뛰놀 때부터 바지락을 까기 시작해 바지락을 까서 가정을 돌보고 백발이 성성해졌다는 내레이션을 들으며 바지락 까는 작업이 누군가에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인생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천에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은퇴 후 대부도에 큰 한옥을 짓고 펜션업을 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도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젊은 시절 아내를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지금은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된다며 눈물을 보이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모습에 또 눈물을 보이는 아내를 보면서 우리네 평범한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인생 황혼기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최MC] 가공되지 않은, 순수하고 평범한 주민들의 일상이 주는 감동이 느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공간다큐 만남>...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최지해 아나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지해]

네. 첫 번째 의견입니다. 프로그램 시작부분에서 안산의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시화호길을 달리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사리포구의 추억이나 과거 수인선 협궤열차로 내용이 넘어갔다가 다시 자전거동호회들의 라이딩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교차편집으로 내용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순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우현]

네. 이날 방송을 보면 내레이션과 제작진 인터뷰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스토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아이템별로 유기적 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라이딩 장면을 교차편집한 부분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동호회의 라이딩장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단순하게 배경적 요소로 자전거 동호회의 라이딩 모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가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가거나 라이딩 이동 경로에 따라 명소나 맛집 소개를 이어나가는 것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지해]

네. 다음 의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은 <공간다큐 만남>인데요. 공간의 의미나 이야기보다는 인물의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소보다는 인터뷰에 치중한 구성이 조금 아쉬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우현]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는 담화적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담화는 보통 내레이션과 인터뷰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휴먼 다큐멘터리 장르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가 과하면 오히려 사실성이나 자연스러움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공간다큐 만남>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전제로 그 안에서 다양한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조금 더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또 인터뷰 질문 내용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구성되어 생동감이나 현장성을 담아내는데도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MC] 다큐멘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인터뷰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너무 인터뷰에 의존해...오히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내용의 방향을 해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공간다큐 만남>...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다큐멘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우현] 우선 공간의 의미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다양한 공간 특히 우리 주변에 숨겨진 장소라든지 평범한 일상 속 공간들도 소재로 다루어보면 좋겠는데요. 관광 명소나 맛집 탐방도 좋지만, 골목, 시장, 노포처럼 서민들의 인생 역정이 잘 녹아든 장소들 역시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현재도 잘하고 있으시지만 경인 지역의 지역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재 발굴과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 O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서 더욱더 그 자리를 오래 굳건하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최MC] 네. '터치OBS' ...<공간다큐 만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작진들이 참고해야 할 체크포인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C.G백판

<터치 OBS 체크 포인트>

최MC] 네. <공간다큐 만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유우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

최MC] 최지해 아나운서, 지난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이 OBS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죠?

최지해] 네. O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시청자 의견>

더빙

출연자 위치: 최지해 아나운서 / 최진봉 MC / 천현진 박사

S/S (OBS 홈페이지)

최지해] OBS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MC]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터치 OBS'... 이어서 진행해볼 텐데요.
미디어 분석 전문가 천현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지해 아나운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S/S 터치 OBS {OBS 뉴스중심}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최지해] 매일 저녁 7시 30분 방송되는 <OBS 뉴스중심>을 점검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11월 18일과 11월 19일 뉴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VCR

< 'OBS 뉴스중심' 11월 18일 ~ 11월 19일 하이라이트 >

더빙

최MC]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한 보도가 있었고요. 시험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수능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S/S 천현진 (미디어 분석 전문가)

천현진]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르는 두 번째 수능이자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시행되는 수능이었죠. 보통 수능 보도 패턴을 보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 분석과 수능 전후 시험장 스케치를 하는데요. 동시간대 다른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에서는 코로나19상황에 맞춰 조금 다른 화면 구성을

보여줘서 흥미로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시험장 풍경을 화면 삼분할로 보여주면서 확연히 달라진 풍경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보도가 있었고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과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장면을 전했습니다.

18일 <OBS뉴스중심>에서는 한 쪽지는 출제본부 측 입장과 입시업체의 인터뷰를 전달하면서 시험 난이도를 분석했고, 이어진 보도에서는 시험장 스케치를 담았습니다. 현장의 생생함까지 전달한 점은 좋았는데요.

수험생 수송작전의 긴박함,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 후련한 모습의 수험생들을 인터뷰하면서 화면 너머까지 그 감정들이 전달되듯이 수능날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보도의 관행적인 구성에서 벗어난 색다른 변화도 기대해 봅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천현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OBS뉴스중심>에서는 변화된 일상에서 오는 기대감과 우려를 담은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확진자 늘어날 것으로 진단하고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보도나, 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병상 확보 문제 등을 다각도로 조명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등 코로나19 관련 용어로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방역 긴장감 유지와 백신 미접종자들을 위한 정책 거부감 완화 등을 이유로 공식 명칭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코로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백신패스'는 '방역패스'로 지칭하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OBS뉴스중심> 보도 내용이나 헤드라인, 리포팅, 자막 등에서 공식 명칭과 사용 자제를 요청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용어이지만 미디어가 사용하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 보도에서부터 공식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지난주에도 <OBS 뉴스중심>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지혜 아나운서, 시청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주시죠?

최지해] 11월 18일 보도 가운데...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잘 몰랐던 제도인데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전해줘 좋은 정보가 되었다는 시청자 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도인 만큼 대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나 사업효과성을 분석한 통계를 더해서 보다 깊이 취재해 보도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자투리 국공유지를 활용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업 내용 자체는 관심을 끌기 충분했지만 취재를 위해 진행된 행사 위주로 영상이 구성돼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져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MC]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사업과 인천의 영구임대주택 사업 보도에 대해 시청자 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청자 분들의 의견과 같으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현진]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관련 보도는 실제 지원을 받은 시민들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팀장의 인터뷰를 덧붙여 전달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실제 상담 장면이라던지 인터넷을 통한 신청 페이지를 보여주었고요, 신청대상이나 신청방법과 현재까지 지원받은 인원과 지원액수를 리포팅으로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의견처럼 관련 통계치를 덧붙여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격요건이나 제출서류, 진행절차, 문의방법 등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줬다면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사업도 혜택을 본 시민과 인천시장 인터뷰를 담아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임에도 보도 내용 구성에 따라 시청자 의견처럼 지자체의 홍보성 기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지자체에서 배포된 자료나 현장 취재 요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에 대해 자료, 현장 등을 추가로 취재하고, 분석해서 해당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이슈 기획코너 ‘한 뼉 더’에서는요. 경기도가 밀어붙였던 무료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일산대교’ 문제를 조명했는데요. ‘한 뼉 더’는 어땠을까요?

천현진]

<OBS뉴스중심>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문제를 무료화부터 민간사업자의 불복 소송 소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19일 한 뼉 더 코너에서는 2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인용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도정의 한계점과 앞으로 재판을 전망했는데요. 현장에서 시민 인터뷰를 싣고 실제 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덧붙여 해당 문제에 대해 무게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본안판결이 남아 있고 이용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언론도 해법 마련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해법을 모색하여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앵커의 시선으로 현안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앵커 포커스’는요. ‘선거 앞 차별받는 소수가 대수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현진]

지난 9일이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차례 연장했던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4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수 언론도 차별금지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 단순히 성소수자를 위함이 아니라 사회 소수자들, 모든 분야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막자는 법의 취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차별·혐오를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입법 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여러 보도들을 살펴봤는데요. 11월 18일과 19일 보도 가운데 의견을

더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천현진]

<경기회복·국민지원금에 가계소득 8% ↑ ...역대 최대폭>라는 제목으로 단신 처리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계 관련 보도를 단신으로 처리해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로 헤드라인이 리포트 내용의 전부였는데요. 실제 이 통계자료 안에는 3분기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여기에는 정부 지원금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 소비를 자제한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격차도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9월에 국민 88%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만 반짝 개선되는 소득과 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배경과 맥락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최MC]

(답변 짧게 받으시고)

지난 주 방송된 <OBS 뉴스중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어 분석 전문가 천현진 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하신 후 클로징 멘트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최MC]

이번에는 O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추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클릭 OBS'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VCR	<클릭 OBS>	SOV
-----	----------	-----

VCR	<정말로>	SOV
-----	-------	-----

최MC]

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CR

후CM

SOV

2021. 11. 05. 08:50-09:50
436회 채정화 평가원 출연분



2021. 11. 12. 08:50-09:50
437회 이미선 평가원 출연분



2021. 11. 19. 08:50-09:50
438회 채정화 평가원 출연분



2021. 11. 26. 08:50-09:50
439회 유우현 평가원 출연분

